



교섭속보 10호

2017년 7월 31일 월요일

<http://korea.nodong.org>

발행/고대의료원지부

발행인/홍세나

<7차 산별현장교섭 보고>

THE GRADE KUMC! 더 발전하는 노사관계!



7월 27일(목)에 진행된 7차 산별현장교섭은 의료원에서 교섭위원 교체로 인해 요구안 심의가 어려울 것을 고려해 상견례로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지부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수락했다.

**노, 노사 집행부 새롭게 꾸려진 느낌,
앞으로 잘 해보자.**

사, 노사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첫 단추.

노사 대표위원 인사말 전 새로운 교섭위원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서성구 노사협력 팀장은 “의료원발전과 노조 발전에 함께 하고 싶다. 앞으로 협조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뒤 이어 강신관 인사팀장은 “업무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 잘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노사 대표위원 인사에서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새로운 서성구팀장님은 인사부서 및

여러 부서에 오래 계셨다. 한편 사무국장님과 노사협력 팀장님이 바뀌셔서 노사관계 다른 분위기로 갈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고 말했다.

홍세나 지부장은 “서위원님 어려운 자리 맡으신 만큼 응원하고 싶다. 인사발령 나고 노조 사무실 바로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 상견례 형식을 요청 하셔서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응하게 되었다. 처음 시작하면서 새로운 노사관계 만들어가자는 입장을 서로 확인했는데 어려웠다. 두 분이 바뀌시면서 지금은 새로운 집행부가 꾸려진 느낌이다. 앞으로 잘 해보자. 남은 교섭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고대의료원만의 가치, 자긍심

“THE GRADE KUMC”를 만들겠다.

김효명 의무부총장은 고대의료원만의 가치

를 높이기 위해 연구 및 의료데이터분야 정책 계획을 밝히며 국민에게 고대의료원을 각인시킬 수 있는 ‘THE GRADE KUMC’ 를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노측 교섭위원들은 고대의료원이 의료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고대의료원의 발전 속에서 직원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의 일자리 위원회를 통한 비정규직 정규화 노사가 함께 노력해보자.

한편, 우리지부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8월까지 기관별 계획 취합, 9월중 로드맵을 발표 한다는 기사를 전하며 일자리 위원회 보건의료분과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화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대의료원의 가치를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 위대한 고대의료원을 위해

현장부터 점검하고 가야 할 때!

고대의료원이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의료원 정책에 맞춰 현장과 직원들이 얼마나 받쳐줄 수 있는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다면 정책은 유명무실에 그칠 뿐이다.

차기 교섭은 바로 의료원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직원들의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하는 교섭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F 실무 회의 진행

올해는 노동조합의 조기교섭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각 병원 산안위에서 다른 안건들 중 3개 병원 동시 안건이었던 논의사항에 대해서 안전 •보건관리자와의 실무협의체인 TF팀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 구로병원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TF팀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사측은 3개병원 안전보건관리자가 참석했으며 노측에서는 노재옥 수석부지부장, 이장구 사무장, 최재원 조직부장, 정혜란 교육부장이 참가해 병원마다 논의할 안건을 다뤘다. 다음은 노사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 및 이를 바탕으로 실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보고내용이다.

■ 노사 실무 TF 진행 전 논의 내용

안건	노동조합 질의 및 건의	사측 답변
시설팀 작업복 선택지급에 관한 건	2015년 3개 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논의내용	
	시설팀 작업복이 긴팔만 지급돼 평상시나 작업 시 땀 배출이 어렵다. 한여름에도 긴팔만 입어야 하는 고충을 해아리고, 근무복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성 하복을 추가 지급했으면 좋겠다.	안암 (2015년 9월 3일 3-4분기 산안위) 지부교섭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공감 가는 부분들은 규정개정을 해서라도 3개 병원이 공히 빠른 시간 내에 적용될 수 있게 될 것 같다.
		구로 (2015년 7월 20일 2-4분기 산안위) 직원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접수 받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다.
		안산 (2015년 7월 14일 2-4분기 산안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수술실 근무화 지급에 관한 건	2016년 7월 6일 1-4분기 노사협의회 논의내용	
	<p>① 수술실 마취과의 경우 간호부에서 제공하는 간호화를 착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체 안전과 활용성 강화를 위해 2년에 1컬레 선택 지급 해주면 좋겠다.</p> <p>② 단협 피복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다.</p>	<p>① 몇몇 부서만 주다가 너도나도 달라고 확대되면 감당할 수 없다. 또한 의료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안위에서 기관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다.</p> <p>② 필요성 및 확산의 효과를 추산하기 어려우니 각 병원들과 협의해서 확인하고 결과를 알려주겠다.</p>

■ 3개 병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 TF 진행 결과

1) 시설팀 단체복 지급의 건 : 시설팀의 경우 유니폼으로 입을 수 있는 셔츠가 제공되지 않아 개인 옷을 유니폼으로 사용함에 따른 불편함이 3개 병원 공통 사항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병원에서는 유니폼으로 사용가능한 셔츠를 지급하기로 함.

- ① 안암병원 : 올해 지급 예정(내년 지급 건 미리 지급 예정)
- ② 구로병원 : 내년부터 선택지급(기존 지급하던 단체복과 반팔티 中) 예정
- ③ 안산병원 : 내년부터 선택지급(기존 지급하던 단체복과 반팔티 中) 예정

2) 수술실 크로스화(실용화) 지급 건 : 수술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일반 간호화를 착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수술실 내부 감염위험, 간호화로 인한 수술실 오염등으로 맨발에 크로스화를 착용) 결국 간호화 대신 개인비용으로 구입하여 왔다. 이에 노사는 개인비용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크로스화(실용화)를 지급하기로 함.

- ① 수술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크로스화 지급
- ② 안산병원 간호부에서 진행 중이며 결정 되면 구매팀에서 코드 만들 예정